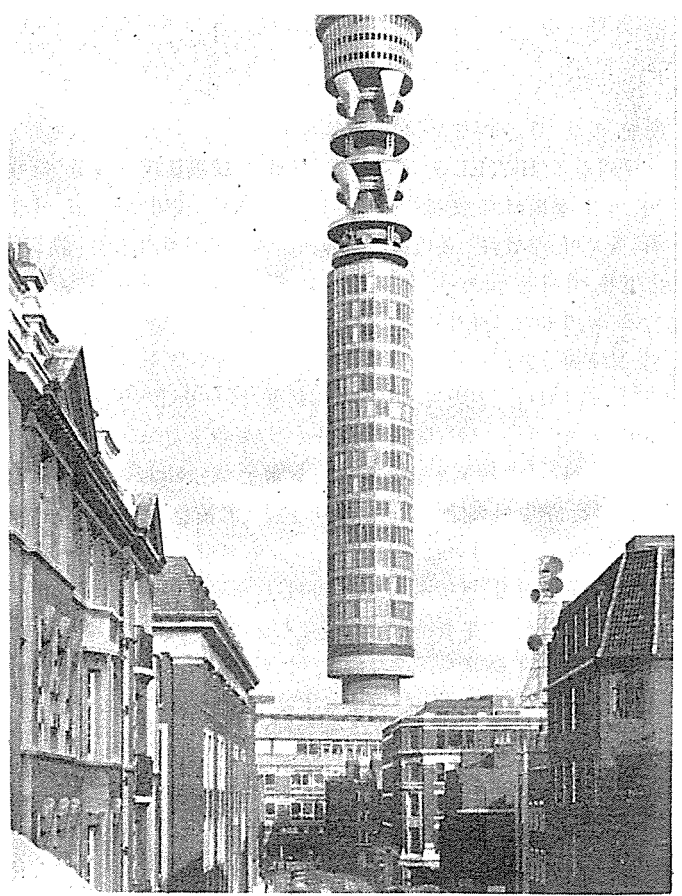


〈르브〉

歐美紀行 (2)

崔昌奎

(韓國建築家協會長·會員)



런던 TV 방송국

各國의 各樣의 衣裳이 原色地帶처럼 붐빈다. 港內 擴聲器는 繼續 떠든다. 佛語와 英語로 말하는 데 거의 佛語로만 하는 느낌이다. 佛語를 모르는 우리에게 먼 倣나라 이야기 같다. 옆에 있던 알제리 親旧가 英語로 히피스타일의 美國青年과 이야기하고 있다. 丹欄잎을 그린옷과 “룩색”을 진 카나다의 數名의 大學生(建築科生)들이 떠들고 있다. 물어보니 그들은 歐羅巴 古代建築을 求景하러 왔다고 한다. 거이 거지에 가까운 行裝들이다. 무슨 登山用 차림이다. 無錢旅行者들 같다. 알미늄 파이프로 지게같이 만든데다 짐을 싣고 주전자까지 매달려 덩그러링거린다. 이런 行裝으로 世界各地를 돌아다녀도 劣等意識이나 体面같은 것은 眼中에도 없다. 오직 떠들고 工夫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明朗하게 休暇나 放學을 利用한다. 참 부럽다고 生覺했다. 이런 學生들은 旅行中 어메서든지 만났다. 特別히 日本學生이 더욱 많으니 알림기만하다. 우리 學生들은 왜 이런 旅行을 할 수 없을까? 언제 저이들처럼 明朗하게 旅行을 다니게 될까 生覺하니 우리 學生들이 불쌍해 보여졌다.

이들의 말에 依하면 YOUTH HOSTEL에 加入

해서 證明書를 가지고 世界 어느 YOUTH HOSTEL에 가도 宿食할 수가 있으며 一宿泊에 美貨七十五仙(우리돈 三百원)이면 된다고 한다. 「트럭」도 便乘하고 걸기도 하고 自轉車를 사서 타고 다니다가 歸國면 팔고 가는 要領꾼들도 있다는 것이다. 農村이나 都市나 어메서든지 그런 學生들이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車들에 손을 드는 光景을 많이 보았다. 그중엔 나이 어린 女學生들도 많이 섞여 있다. 이윽고 韓碩鎭氏가 왔다. (韓昌鎭氏의 親弟) 그의 車로 市内에 들어갔다. 途中에 아파트新築現場이 많이 보인다. 先入感인지 프르비퀘 스타일이 많이 보인다. 옛 巴里博覽會터엔 日本市場展示館이 남아 있을뿐 貧弱한 郊外의 氣分이다. 大使館에 到着했으나 點心時間이어서 職員이 거의 없다. 巴里的 점심時間은 二時間이나 된단다. 受付에 佛蘭西아가씨가 앉어있어 우릴 보고 韓氏가 무어라고 하니 우릴보고 微笑로 人事한다. 우릴 英語로 人事했다. 大使館 玄關에서 姜錫元氏를 만나 몇해만의 相逢이 몹시 반가웠다. 韓氏와 姜씨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姜氏가 勤務하는 設計事務所가 大使館 가까이에 있어 자주 만났다는 것이고 姜氏도 大

使館 일을 잘 도와준다고 칭찬들이다.

우리들의 HOTEL도 마련되어 있었고 韓昌鎭氏가 미리 季氏에게 便紙를 했기에 모든 일을親切히 돌보아 주었다. 姜氏는 勤務時間까지 割愛해서 巴里를 떠나는 날까지 갖인 手帖을 해 주었다. 참말로 고마웠다. 처음으로 巴里에서의 점심을 먹으러 食堂에 들어섰다. 종이로 된 桌子 카바며 모든 것이 새로웠다. 姜氏의 通譯으로 食事が 나왔다. 량이 몹시 적다. 飛行機內的 食事は 豪華로웠고 량도 많아서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異常한 氣分이다. 마치 시골 學生이 처음 서울에 와서의 食事光景을 聯想케 한다. 옆자리에서 食事中인 女人에게 한 親日가 들어와서 반갑게 무어라 하더니 대답 그 많은 사람속에서 食事を 하고있는 女人을 꺼안고 키스를 소리내며 해낸다. 우린 어안이 빙빙 했는데 姜氏는 泰然하다. 巴里에 六年이나 있었고 佛語도能通하니 이젠 여기 風俗에 同和된 모양이다.

大使館에 돌아와 보니 玄関앞에 뭇헛 올림픽에 갔던 韓國民俗藝術團 幹部들이 와 있다. 林柄稷團長 以下 朴貴姬女史가 몹시 반가워서 손을 잡고 人事하면서 서울消息(특히 南北赤十字會談)을 機關銃처럼 물어낸다. 그러고보니 거리에 韓國 藝術團公演의 POSTER가 가끔 눈에 띄었다. 저것좀 칼라로 했더라면 하는 生覺이 들었다. 黑白寫眞이어서 좀 초라해 보였다. 長鼓춤 추는 寫眞인데 그래도 반가워서 나는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사람은 外國에 가서 祖國을 더 알고 愛國心이 더 일어나는가보다. 그들의 公演은 巴里에선 比較的의 成功했다고 보고들 있었다.

巴里는 요저음이 한창 觀光시즌이라서 HOTEL이 거의 滿員이어서 우린 二日後엔 다른 HOTEL로 또 二日後에도 HOTEL을 移轉했다. 그때마다 姜氏와 韓氏가 애를 써 주었다. 그래도 한 房에 셋이 자곤 하니깐 費用이 三等分되니 싸게 留宿할 수가 있었다. 혼자 들어도 그 값을 다 치루어 야 하니깐…….

巴里는 너무 이야기나 寫眞, 映畵 或은 冊으로 읽고들었음으로 웬만한 古跡이나 名所는 다 알고 있었지만 거리에 서서 보니 그리 大端치 못한 것 같다. 公園과 나무가 많아서 아름다웠지만 藝術의 都市, 詩의 都市라기보다는 오히려 숲의 都市 같다.

放射線式的 街路에나 建物의 樣式과 높이가 大部分 같아서 그 거리가 그 거리 같고 아주 집 찾기가 어렵고 方向感覺이 混亂된다.

凱旋門을 中心으로 八方과 十六方向으로 街路가 整頓되어 있다. 그 有名한 “산제리제”는 들은 것보다 못하다. 길을 헛갈리게 되어 HOTEL로 돌아갈 때도 애먹었다. TAXI를 타면 方向이 異常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는것 같은 錯覺이 난다.

우리 大使館에서 온 뜻을 말하고 來日부터 行動할 計劃을 같이 세우고 巴里에 처한 여러 가지 注意도 들고 于先 第一目的인 總會參席 VISA를 얻을 萬般의 準備를 했고 張領事와 協議 U. I. A. 事務所부터 訪問하기로 했다.



런던 탐

巴里에 十三日間이나 滯留했기에 길을 좀 익히게 되어 HOTEL에서부터 大使館까지가는 길은 問題없을 정도가 되었을뿐 아니라 佛語單語도 몇마디 외울수 있었다. 姜君이 바쁜時間을 割愛해 주어 案内를 말아 주었으므로 名所라 할만한 곳은 거의 다 둘러보았지만 期待가 너무 컸었는지 別로 신통한 생각은 안들었다. 郊外의 “코르뷔제” 初期의 作品을 보곤 그리 大端치는 않으나 그 當時 이런 住宅은 確實히 大膽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入口에 訪問客의 芳名錄이 備置되어 있어 들쳐보았더니 各國建築家들이 모두 다녀갔음을 알겠고, 특히 日本人이 많았다. 우리는 붉은 매직 펜으로

가장크게 『대한민국 건축가 누구』라고 한글로 쓰고, 날자를 써 넣었다. 이번 旅行中 名所의 곳곳에 芳名錄이 있었으며 우리도 그때마다 한글로 크게 記入했다. “노틀담”(NOTREDAM)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ABBEY(사원) · UN會館等.

하루는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巴里 全市街를 내려다 볼 기회가 있었다. 높은 建物は 旧市街엔 없고, SKYLINE이 아주 水平인데 비해 郊外 新地區에는 NEW PARK 計劃에 依해 現代 建築이 높이 솟아 오르고 있다. 원래 巴里는 建築法規가 까다롭고, 古跡이 있으면 그 古跡을 中心으로 半徑 몇 m以内엔 新築을 못하게 하고, 既存修理에도 아주 까다로운 節次와 法規가 있어, 옛모습대로 한 다지만 郊外 新地區는 거의 開放의인 모양이다.



드라파갈 광장

建築高度 相當히 높은 것이 일어서고 있다. 이 郊外 建築現場도 求景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現場에 作業人員이 아주 적고 거의가 機械로 하고 있었다. 어느 半竣功된 아파트먼트는 一世帶만 完功시켜서 家具며 壁에 그림, 꽃, 술병등을 꾸며놓고 入住 申請을 받고 있는데, 한방에 SLID 備置까지 해 놓고, 圖面이며, 申請, 製作등을 說明하고, 印刷物도 예쁘게해서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 SAMPLE HOUSE의 LIVING ROOM은 의자며 기타 가구가 하도 멋 있어서 (二時間이나 求景을 하면서) 포도주까지 대접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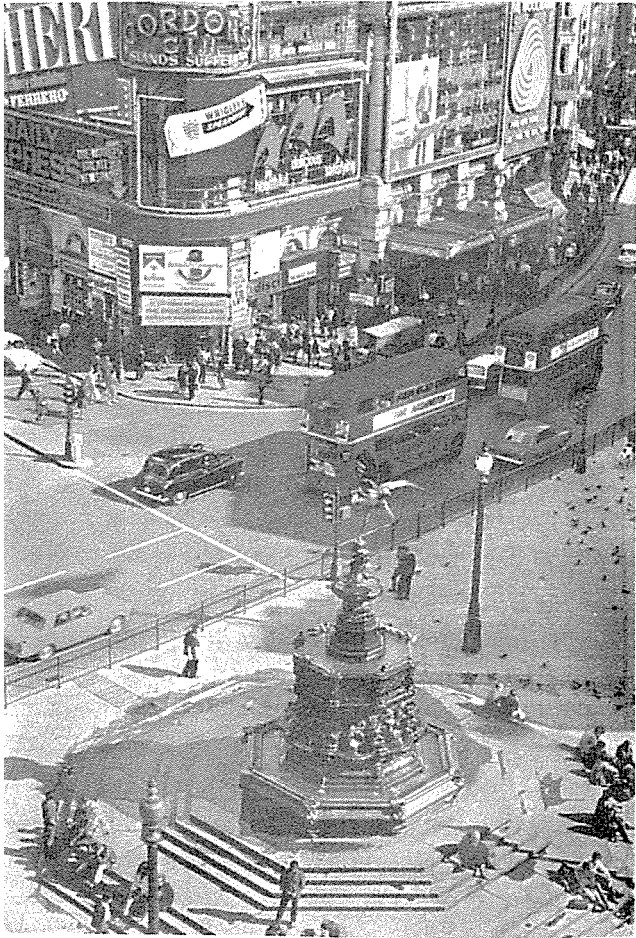
巴리에 다 너은 사람들에게서 “나포레옹, 記念館” 이야기는 자주 들었어도 로맹 記念館이야기는 못 들은것 같다. 제란색壁의 로맹 記念館에서 二時間以上이나 머물며, 有名한 「생각하는 사람」 「샘」 「가레市民」等 그의 名作을 돌아보면서 왜 建築家들이 巴리에 와서 이 記念館을 들르지 않았을까하는 기이한 생각이 들만큼 깊은 감회에 젖었다. 建築家다 해서 꼭 建築만 보라는 理由는 없는 것인데...하물며 “로맹”의 彫刻을 안보고 오다니.....

세느江에 배를 띄우고 저녁노을을 보며 두시간이나 오르내리는 동안 江邊숲속에는 男女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고, “히피”들이 露天에 누어자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구라과各地엔 “히피”가 많이 보였다. “몽마르트” 언덕 階段에도 햇볕을 쬐이며 HAPPY SMOKE를 태우는 “히피”들이 있었고, 밤엔 公園 到處에 四, 五人씩 모여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들 있다. 如何間 골치끼리인 모양이다.

佛蘭西人은 体格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으며 특히 女子들은 우리나라 女子들 보다 一般의으로 적어보인다. “나포레옹”도 五尺四寸의 키 였다지만 우리 일행의 体格은 佛蘭西나 伊太리에선 中以上の 体格이어서 身體的인 劣等感같은 것은 가질 必要도 없었다.

병에 넣은 물을 사 먹는건 좀 異常했고 아침 食事가 너무도 (COFFEE에 빵한조각) 처음엔 괴로웠으나 몇일 지나니 제법 참을만 했다. 맴고 짠 것이 먹고 싶으면 中國 飲食店에 갔다. 中國語도 通하고 고추 가루도 뜨거운 국도 마실 수 있고, 특히 白飯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天律」이란 中國집에선 女主人이 天律出身이라 商號도 그렇게 지었다길래 내가 「天律」에 三年이나 있었다고 하니 무척 반가워하며 中國語로 이야기를 나누며, 料理도 몇가지 대접해 주는 善心(?)을 베푸는 것이었다.

佛蘭西人 뿐아니라 巴리에 와있는 外國人들도 食事時에 거의 포도주를 마신다. 우리 一行中에서 술을 쏠려 못마시는 나만 除外하곤 食事時에 꼭 포도주를 마셨다. 그것은 물값과 포도주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生産된다는 데 起因하겠지만 冷水를 유리병이나 비닐병에 넣어 판다는데



가장 변화한 피카디리街

는 놀랐다. 上水道를 못마시는 것은 아니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衛生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물會社가 다르면 물名도 다른 렛텔을 붙였다. 참 우습기도 하지만 구라 파에 물의 公害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都市人의 心情도 首肯이 간다. 나는 가끔 농담으로 “우리 一行에게 당신들 이렇게 포도酒를 마시다 習慣이 되면 婦國해서 어쩔나고” 하여 함께 웃기도 하였다. 그들의 食事量은 우리에게 비해 꽤 적은것 같다. 원래 別로 肉体的勞働을 덜하는 탓도 있겠지만 一般的으로 체구가 적으니 飲食의 量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巴里人은 自尊心이 強하며 矜持가 높다고 들었었다. 과연 그러한 點을 發見했다. 英語로 말을걸어도 佛語로 대답한다. 英語를 알면서도—

服裝과 걸음걸이와 態度가 도도해 보여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矜持며 自尊心인가? 一八〇

〇年代부터 일어서 “나폴레옹”이 勢力을 擴張했고, 共和國서 帝國으로 다시 共和國으로 변천하면서 一八〇〇年代에 文芸復興運動의 中心이 되었을 뿐 博物館에는 一七〇〇年 以前の 것은 거의다 “로마”나 “희랍”“에집트” 것을 훔쳐 온 것이지 自己네 것은 아니다. 오직 그들것이라면 一七〇〇年代 以後의 것 뿐이다. 내가 희랍인이나 伊太利人 或은 에집트人이라면 腹痛이 날 지경이다. 루블博物館이나 나폴레옹 記念館의 陳烈品이 거의다 掠奪해 온 것이지(그들은 戰利品이라고 함)불란서 것은 極少數이니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歷史上 “나폴레옹, 이 最高의 자랑이요, 最高의 英雄이요, 불란서 즉 나폴레옹이고 그들의 信仰처럼 알고있다. 하키야 큰숨 한번 못쉬고 있다가 五尺短身의 砲兵將校가 舍구라파를 席券하고 그들 말대로 各國의 寶物을 戰利品으로 掠奪해서 富를 쌓았으니 그럴 수 밖에……그前그後엔 그런 人物이 없었고 나폴레옹이있음으로 佛蘭西가 존재했으니 그들로서는 當然한 일인것이다.

“로—드릭”의 POSTER 가 붙은 “무랑루쥬”는 타락했고 “비갈”街는 환락街로 變했고 詩的인 “세—느”江도 물이 더럽고 노래에 나오는 “마로니에” 香氣도 가신지 오래다. 觀光客 相對의 뚜쟁이 너석들이 日語로 음탕한 말을 걸길래 큰소리로 그 뜻이 무언지 알고나 하느냐?고 하니 日人이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自尊心있는 佛人은 그런말을 쓰면 안된다고 했더니 얼굴이 붉어진다. 日人들이 아주 음탕한 말을 가르쳐주어 그들은 뜻도 모르면서 女子가 必要할 것같은 客이면 서슴치 않고 日語로 그런말을 쓴다.

HOTEL에 돌아와서 一行은 그말을 다시 흉내 내면서 배를 안고 웃어댔다. 하루는 姜錫元氏 車로 거리로 나갔더니 옆길에 車 한대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놀라서 車를 急停止하고 姜氏가 佛語로 화를 내며 運轉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젊은 女人이 窓을 열고 샅대질하며 屢지거리를 한다. 姜氏도 참을 수 없어 맛장구를 친다. 우리는 車안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듣기에 漸漸 險惡한 屢이 오가는 모양이다. 나중에 姜氏가 참다못해 팔을 걷고 車에서 뛰어 내리니 이제까지 殺氣

등등 하든 그女人은 손살같이 急廻轉해서 달아나는 것이다. 姜氏와 우리는 어이가 없어 웃어보이곤 말았지만, 巴里女人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外國의 젊은 女人들이 담배를 피워문다든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巴里는 女學生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잘 마신다. 男女間의 포옹이나 키스도 泰然하다. 거리는 사람이 많은 場所든 가리지 않고 氣分나면 키스를 한다. 심지어는 에레베타속에서도 泰然히 氣分내며 쾅쾅대면서 키스를 해댄다. 上氣된 얼굴로 온몸을 어루만지며…… 그쯤되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더 未安할 정도다. 果然 巴里人들은 氣分派인가보다. 또 우리나라의 南大門이나 東大門市場같이 도적질한 物件을 파는 市場도 있다. 마치 中國의 黑衣街市場을 연상 시키는 · 이런 곳에서 재수있으면 骨董品을 싸게 사는 수도 많았다. AFRICA 土人들은 路上에다 그들이 손수 만든 民俗 木刻을 벌려 놓고 있다. 英語로 물건을 파는 유일한 巴里의 商人이다. 또 歐美各地엔 日語로 日本人을 환영하여 案内한다는 팻말이 많이 붙어있다. DENMARK나 NETHERLAND에 까지도 TOYODA, SEI-KO, HONDA 등의 着極이 商店에 걸려있고 심지어는 空港 免稅区内의 SHOP에 日本人 女子가 日語로 손님을 접대하는 곳도 많았다. PARIS 만 해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日本 시골 農村의 老人들 까지도 많이 旅行오곤 했다. 따라서 거리에선 日文으로된 旗를 先頭에 들고 길을 잊지않게 하느라고 소리지르는, 손에는 日本 手巾을 든 団体 旅行者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다 그들은 完全한 시골뜨기들로 저희들끼리 시끄럽게 시시덕대며 입을 벌린채 놀란 表情으로 몰려 다닌다.



다우닝가 10번지 수상관저

旅行中 우리 일행도 日人으로 誤認된 적이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韓國이라고 열심히 크게 說明해 주었다.

어느 나라에 가든 言語는 그리 걱정할 것이 못된다. 나의 짧은 英語 實力으로도 별로 不便하지 않았고, 가끔은 누구나 날 때 부터 특정한 國際語를 쓰면 해결되었다. 즉 손짓 발짓 그리고 뜻을 알리고 싶어하는 表情으로 때려잡는 啞人들의 手話이다.

即 世界言語를 統一하려면 이 手話式 國際語 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巴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뽀뽀뽀니해도 S-HOW들이다. 有名한 것이 “무랑루쥬”MAX-M“CASINO DE PARIS”“LIDO”들이며 가장 알려진 것이 상제리제에 있는 LIDO SHOW이다.

二日前에 姜氏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겨우 四人 座席을 얻었다. SHOW 始作 一時間前에 가서 座席卷을 얻어 자리 잡고 앉았다. 場內가 메워지자 正門은 아예 닫아버린다. 世界 各國의 觀光客과 佛蘭西 富裕層의 紳士 淑女들로서 大滿員이다. 이 S-HOW는 約二時間程度로 一回가 끝나는데 나올 때 보니 다음 回의 人波가 큰 거리에 까지 줄지어 있었다. 여기는 通行禁止 時間이 없어 새벽 四時까지 하고 늦게 일어 난다. 普通 十時項에 일어나 간단한 朝飯을 하고, 곧 二時間以上되는 점심時間이 있다고 한다. 国民學校 登校도 우리 보다 썩 늦은 모양이다. 九時에 눈을 떠서 거리를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 六時項 光景 같이 사람이 거의 없다. 길과 商店은 그제서야 掃除하기 始作하며 아이들이 하나 둘씩 登校하기 始作한다.

LIDO SHOW는 果然 말대로 화려했다. 춤, 노래, 코메디, 曲芸서부터 猛獸까지 動員 됐다. 魔術도 前衛舞蹈도 거의 裸體에 가까운 怪常한 춤도 있고, 連鎖劇式의 토막演劇도 있으며, 마지막은 出演者 全員이 舞台에 나와 “상제리제”의 노래를 合唱한다. 라디오며 TV가 中繼하고 있는데 事實은 巴리에 사는 사람들도 LIDO SHOW는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란단다. 꼭 서울의 特殊層만이 WALKER HILLSHOW를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HOTEL 에 돌아 와서 主人에게 LIDO에서 준 寫眞, 성



테임스 강변 뒤에 보이는 영국 국회의사당

양(各자의 寫眞이 찍혀 있는 것). 어느 새 고객의 사진을 찍어서 성냥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보였더니 놀라서 바리에 三十년을 살면서도 LIDO 를 아직 모를 程度였다. MAX-M이나 CASINO는 LIDO 보다 質이 좀 낮은 모양이고 무량루주는 더 낮아져서 거의 음탕한 것 같은 강강이 아직도 上演된다고 하며 관광객이 많이 몰려 온단다. “LI-DO SHOW 가 繼續되고 있는 途中에도 幕間에 손님이 音樂에 맞추어 춤출 時間도 준다. 한 아프리카 黑人 부부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아주 점잖게 춤을 추고 있는데, 영 어울리지 않는다. 白人들은 벡타이도 안매고 히히덕거리면서 GOGO 나 지르-박도 추는데 왜 저 黑人은 저렇게 엄숙한表情으로 스텝을 밟는지 異常한 느낌이 든다. 꼭 弱小國民族들이 제물에 劣等意識에 잡혀서 必要以上の 禮儀나 格式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옆자리에 伊太利 中年 男女 六名이 앉아서 웃고 떠들고 말을 걸고 한다. 明朗한 사람들이라 몸짓도 요란하게 한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캐나다 夫婦는 아주 점잖았다. 그들曰, 「佛蘭西 노래는 아무것도 아니고 伊太利가 最高란다. 저 程度라면 伊太利는 누구나 부를 수 있다」면서 出演歌手를 나무란다. 食卓을 피아노 삼아 演奏하는 흥내를 내는데 아주멋

있게 하는 것이 꽤나 閑良 같았다. 구라파선 어느 나라든 BAR에서도 춤춘다. 우리 一行도 좀익숙해져서 “덴마크”나 “회랑”에선 제법 気分을 내어 댄스와 춤추었다. 어색할 理由는 하나도 없기에 各國人과 어울려서 멋지게 추었다. 日本人은 부러운듯 물끄러미 쳐다 보고만 앉아 있었다.

따지고 보니 巴리에선 別로 求景도 못하면서 十三日間을 보낸 것 같다. 始初의 旅行目的을 達成치 못해 우울했지만 나 個人으로선 不可抗力한 일을 어찌러! 最大의 努力을 했지만 國際外交關係란 單純한 것이 아니라고 実感했다.

九月 十八日是 巴리를 떠나야 할 날이다. “소 피아”(SOPHIA)에선 十시부터 總會가 시작된다. 早朝부터 大使館에 가서 十二時 十五分까지 옥신각신 하다가 모든 것을 斷念하고 英國으로 가기로 했다.

밤 十二시에 서울 協會에 國際電話를 申請해 놓고, 기다렸다. 約二時間이면 通話가 된다가에 밤 二時면 서울은 午前 十時이니 出勤을 했으리라 믿고 기다렸으나 영 連結이 안되는 모양이다. 수시로 물어 보면 西獨 프랑크푸르트까지 왔다. “아라스카,” (ALASKA)다 “뉴욕”(NEWYORK)까지 왔다. 하면서도, 東京이 滿線이 되어 안 나온다는 것이다. 完全徹夜를 한셈이 되었으나 아침 八시에 東京은 나왔으나 서울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은 거의 退勤時間이 가까와지게 되어 取消했다. (歸國해서 물어 보니 電話가 왔는데 “巴里”입니다 하고 끊어져 영영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몹시 波勞하고 졸렸으나 伊太利 大使館에 가서 VISA를 얻었고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 經由証도 얻었다. 그리고 航空社에 가서 各國에로의 座席票도 予約하고 大使館에 가서 人事를 하고 HOTEL에 오니 “서울전화 오늘 밤 또 걸것이나면서 서울 참 멀다는 등 어제 밤샘 한 것을 위로하는 건지 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린 英國으로 가기 위해, 짐을 가지고 空港으로 나갔다. TAXI 속에서 英國이면 巴리보다 言語가 좀 통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安心이 되었다.

飛行機가 도바 海峽을 지날 무렵부터 地勢나 人文이 完然히 달라진 氣分이 된다. 空中에서 본

陸地의 色彩가 다르다. 英國 海岸線이 하얗게 보이고 山이 거므직직하게 보인다.

九月 十九日 午後 二時에 LONDON에 到着했다. 아주 快晴한 날씨이다. 안개가 많다는 LONDON이 이렇게 맑을 수 있으랴 의심할 정도다. 이번 旅行中 우린 日氣의 運이 좋았다. 巴里에선 하루, 로마에선 1時間程度 비가 왔을 뿐 完全히 快晴한 날씨였다.

LONDON에선 飛行機서 부터 TAXI에서도 HOTEL서도 言語가 通했다. 神奇할 정도로 통한다. 大使館에 들렀다가 美國 大使館에 들러 美國 VISA를 申請했더니 몹시 까다롭게 군다. 美國人이 이렇게 高姿勢로 까다롭게 굴줄은 미처 몰랐다. 화가 나서 VISA 申請書를 찢어 버리고 HOTEL로 돌아오면서만 나라에 가서 얻어 보자고 했다. 구라파에선 西獨과 美國이 VISA에 대해서 가장 까다롭게 군다는 것이다. 그것은 西獨이 尹伊桑氏 問題 및 아랍계릴라 問題等의 關係이고 美國은 觀光으로 入國했다가 그냥 주저 앉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美國 VISA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고 왔지만…….

空港에서 BUS로 市内에 들어가는 途中 部落이 많은데 그 部落마다 蹴球場이 있고, 어떤 蹴球場은 成人들의 試습이 있었고, 개구장이 꼬마들도 蹴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果然 蹴球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듣자니 LONDON 만해도 市内 郊外 合해서 百八個의 론 그라운드 蹴球場이 있다고 하니, 우리 나라와 비교도 안된다. 施設이 미약한 데 비해 우린 蹴球을 잘하는 便에 속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大使館에 들렀을 때 巴里 大使館에서 電話가 와서 나를 매달라는 것이다. 電話를 받았더니 張領事이다. 會議 참석이 可能하니 곧 巴里로 돌아 오라는 것이다. 合議 끝에 總會에 不參했지만 大會에 參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이다.

大會도 二十五日 부터이니 二十四日까지 巴里에 가기로 하고 SCHEDULE을 변경해서 日字를 短縮시켜 부랴부랴 헨-마크로 가기로 했다. 때문에 이날 午後와 다음날 一日間에 LONDON을 다 돌아야 했다. 보아야 할 곳을 골라서 TAXI를 대절해서 完全 一日 코스로 予約하고 이날은 自由로히



테임즈 강변 하이드 공원

求景기로 했다.

밤에 “피카데리”街에 나가 보았다. 地下 통술집에 가 보고 테임즈 江에 나갔다가 하이드 公園에 들렀다. 快晴한 날이라 市民들이 公園에 많이 나와서 오랫동안 日光浴을 즐기고 있었다. 言語가 通하니 아주 便利했다.

二十日是 아침 八時에 TAXI가 와서 終日 급히 求景했다. 옥스포드나 캠부리지 大學을 불려 갔으나 멀어서 時間이 없었다. 不得히 大英博物館, 런던탑교, LONDON塔, 國會, 박경감궁, 벨슨 廣場, 다우닝街 十番地, TV放送局, 人形博物館, 銀行街, 우인자城, 웨스트민스타寺院, 中國街, 美大使館, 워타루廣場을 모조리 求景했다. 전반적으로 구라파보다 육중감이 있다. 建物도 物件도 거리도 다 沈着하고, 무게가 있어 보인다. 巡警도 帽子가 희한하고 TAXI가 모두 검고, 크고 古型 같다. 화려한 軍服의 궁전파수병의 儀式은 觀光客의 歡心거리다. 時間을 맞추어 雲集해서 기다린다. 무슨 장난하는 것 같다. 世界軍隊中에서 第一 儀式과 格式이 많다고 한다. (계속)